

자비는 우는 이와 함께 우는 것 아닌 웃게 해주는 것

통도사 문수원 수안 스님



수안 스님은 ... 개구쟁이 스님이다. 1940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1957년 통도사에서 입산 출가했다.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참선 정진을 했다. 1979년 부산 여성회관에서 '이리 수재민들기 선물전'을 시작으로 선목화의 세계를 대중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스님의 그림은 대중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수차례의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스님은 그림 외에도 시집 <산이 텅 빈 날> <오 소리> 등과 에세이집 <참 좋다, 정말 좋구나> 등을 출간했다.

영축산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릴만한 명산이다. 큰 산은 이름만큼이나 커다란 도량을 품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그곳이다. 총림이라는 외형적 규모 외에도 불지종가(佛之宗家)라 불릴만큼 대중의 마음 씀씀이도 큰 대찰이다.

통도사 큰법당은 동서남북 방향따라 이름도 다르다. 동쪽에는 대웅전 현판이, 서쪽에는 대방광전이 걸려있다. 남쪽에서 보면 금강계단이요, 북쪽에서 보면 적멸보궁이 보인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대기 설법 하듯 모양을 바꿔 불법이 화현(化現)한 도량이 통도사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도 터를 닦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다재다능한 선지식들도 많다.

선화로 유명한 수안 스님(통도사 축서암)도 그 중에 한 분이다. 스님은 특히 해맑은 동자를 화폭에 담아 보는 이로 하여금 따스함과 편안함을 준다.

나그네가 수안 스님을 만난 것은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여름내 퍼붓던 비에 전국이 한바탕 몸살을 앓고 난 뒤였다.

“스님,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정성스레 올린 삼배 뒤에 나온 상투적인 안부인사였다.

“영축산은 명산이라, 산에 이름이 없어 명산이라 했잖나. 천재지변에 크게 동요가 없으니 명산이라 하는 게지.”

뻘뻘 질문에 대한 수안 스님의 답이었다. 사람도 큰사람이라면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우회적인 가르침이었다.

이어서 스님이 말했다.
“독일 쾰른에 갔을 때였어. 전시회 관계로 한 대학교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몇일이 지났을까 그곳 신문에 내 기사가 났지. 나는 인터뷰를 해준 적도 없는데 말야.”

수안 스님의 말씀이 그랬다. 대학교수 집에 머무는 동안 현지인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일행 가운데 기자가 있었다는 것. 그 기자는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자신이 느낀 것을 글로써 단정하게 풀어냈더라는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처음 만난 자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한 글을 쓰는가?”

수안 스님의 말씀에 나그네는 뒷통수를 크게 얻어 맞은 듯 했다.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다른 이에 대한 글을 할 겸게도 써오던 터였으니.

나그네는 스님을 뵈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다. 스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 공양시간이 됐다. 수안 스님이 오래전부터 당골이었다는 청요리집을 찾아 스님과 함께 자장면을 먹었다.

“스님,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음 주에 당장 신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조만간 정리해서 나오면 스님께 여러 부 쟁겨 보내드리겠습니다.”

“뭣? 당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천만원은 걸리겠네?”

수안 스님을 뵈고 난 후에도 나그네는 계속 수안 스님을 잊지 못했다. 때론 꿈속에서도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그네가 축서암을 나선지 100일이 지났다.

수안 스님은 선시였다.

스님은 “선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생사가 없는 장소에 들기 위한 탈피가 아닌, 생사의 안에 있되 메이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했다.

수안 스님이 물었다.

“그대가 선을 아는가?”

스님은 선은 앓고 서는 것이 전부 아니라고 했다. 자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스님은 “머무는 바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안 스님은 “노래·춤만 되는 세상이 아니다. 선을 갖고도 경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들은 선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어렵다고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님은 “오며 가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아는 것이 화두”라며 “선이 대중화되려면 밥벌이가 되던지, 이에 상응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0일 동안 되뇌여 본 수안 스님

선사·보살·예술가 모습 선행

어려운 곳마다 미소 가득한 붓길 등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주는 천진불

수안 스님은 재미있는 것을 더욱 재미있게 하며 사는 것이 선적인 삶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한국이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 거르지 않고 외래문물을 받아들였다. 문화적인 거품이 일며 우리의 뿌리도 혼돈하는 시대이다”라고 말했다.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초가집이 아파트가 되고, 정겨운 흙길에 콘크리트 신작로가 뚫어지던지 하며 과거의 꿈과 그리움이 현실에서 사라졌다”고도 말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삭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수안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붕 떠 있다. 불안 초조에 고통 받고 있다”며 “선을 하게 되면 불안 초조부터 사라진다. 화도 누그러들고 사회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선은 단조롭지 않다”고 역설했다. “형상 색깔 등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선지식의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스님은 “각자의 마음은 거울이다. 반조한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통을 여윌 수 있을텐데, 밖으로 구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수안 스님은 “부처님은 밤에는 숲에서 명상을 하고, 낮에는 시중에 나가 마음 닦는 법을 설교해왔다”며 “재가자들도 자기 수행을 겸한다면 밖에서 하는 일들도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보살이었다.

노인요양기관인 통도사 자비원은 지금도 수안 스님이 후원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이곳이 처음 설립될 무렵, 수안 스님은 기금마련을 위해 메주를 썬 팔았다. 스님이 무슨 장사냐며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동기가 멎었었으니 스님은 굴하지 않았다. 메주, 간장, 된장 등을 팔아서 생긴 수익금으로 자비원을 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스님은 장사를 접었다.

“종교인은 뭐든 임시방편이어야지 본질도 잊은 채 오래하면 되겠어?”

지금도 스님은 영월 범홍사 등에서 불사가 있을 때면 나서서 돕는다. 된장 대신 붓을 들고

뿐만 아니다. 스님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도울 때면 장삼을 걸어 부치고 빨래·청소 등 곳은 일도 마다 않아왔다. “스님은 점잖만 배서는 안된다.” 수안 스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은 탁발 때 반드시 일곱점만 다녔어. 무엇을 주든 발우에 담아야 했고, 먹어야 했지. 나는 노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 모두가 성스럽고 귀한 일들 아닌가?”

수안 스님은 “개인의 생각이 깨어 있으면 사회도 깨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혜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한 명의 현자가 있다면 그의 지혜로 인해 천길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걷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는 말이다.

스님은 <장자>의 곤(鰓)과 봉(鵬)을 예로 들었다. 곤은 북쪽 바다에 사는 상상의 물고기이다. 이 곤이 번데기를 거쳐 새가 되는데 이 새가 바로 봉이다. 봉의 등 넓이는 수천 리에 이르며 온몸의 힘을 다해 날면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 한 쪽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했다.

수안 스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른 뜻을 세우게 한다면 누구나 큰사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예술가였다.

스님의 그림은 원과 삼각형 사각형이 기본이다. 원은 하늘[불]을 삼각형은 사람[법]을, 사각형은 땅[승]을 의미한다. 쪽빛과 먹색을 주로 사용해서 그린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스님의 그림을 보고 평가한 이들의 말이다.

스님은 “쪽빛과 먹색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접하고 아름다워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림은 그냥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림 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수안 스님은 한국 선화에 색감을 입힌 최초의 인물이다.

수안 스님은 “그림 6000만장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인즉슨 우리민족이 6000만명이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님의 그림을 전해줘 모두의 지혜가 열리게 하겠다는 발원에서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탑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도

-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탑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뒹!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워트』 1,049,000원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창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국 마하연투어

☎ 02)365-7747

선은 단조롭지 않다



수안 스님은 에세이집 <참 좋다, 정말 좋구나>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너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꽃듯하게 현실을 이겨가는 이들에게 이 글과 그림을 바친다. 이것은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이자 그림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면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 평생을 만족하며 살아온 지체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외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숨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바닷속의 물고기, 돌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돌아나는 속 한뿌리, 또 떨리는 거친 한과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태백산 맥과 가까이 있는 축서암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줄기의 노송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그림은 천진하다. 스님의 그림이 천진한 것도 삶이 고된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자비이다. 불사, 복지 등을 위한 일이면 마다않고 붓을 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스님은 "누구나 슬픈 일에 함께 울어줄 수는 있다. 진정한 자비는 우는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는 것.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선화에 색감 입힌 선시화가 어려운 우리네 삶 화폭에 담아내

스님의 그림은 원·삼각·사각형 더불어 사는 삶을 알리려 그림 뿐

스님이 가장 아끼는 자작시, '사모곡'

나
휘휘 벗어 버리고
고향으로 가리라.
고희가 넘으신 어머니 눈에는
절없는 개구쟁이로
나
돌아가리라.
빈 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세상 다 돌아봐도 될 곳이 없으니
작은 가슴 활짝거리며
나



어머니 품으로 가리라

바람에 날리운 어머니 하얀 머리카락
한 울 한 울 빗길에 드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개구쟁이 효자로
나
돌아가리라.

봄이면 개울 속에 지천으로 피어 떨어지는
살구꽃 밭그레 닳은 아이들 뛰는 모습 바라보며
넘치지 않는 작은 소망을 뒷 바새발에 심으려
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조동섭 기자 oetana@gmai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나의 길은 무엇인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에게 시간에 매이지 않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천지를 개척한 기분이 든다. 지난 주말에 괴산에 있는 고찰 각연사를 찾았다. 주지 범공 스님의 가람수호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느낀바 많았다. 비로전 앞에 있는 보리수 열매로 만든 단주를 내놓기에 하나만 갖겠다고 했다.

이제 무성했던 잎과 열매가 다 지고 난 보리수는 바지랑대 마냥 허공을 받치고 있다. 어찌 허공을 받치고만 있으랴. 중생의 헤아리기 어려운 번뇌가 주저리주저리 달려 있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황벽회운 선사의 제자 목주 (睦州; ?-850) 선사가 있다. 성은 진(陳)씨이다. 목주의 용흥사에서 종적을 감추고 항상 짚신을 삼아 몰래 저자거리에 나가 팔았으나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진포제(陳蒲鞋)라고 별호를 붙였다. 그때 학인들이 찾아와 물으면 거침없이 대답하니 누구 하나 선사의 말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방에서 귀의하여 받들게 되어 호를 진존숙(陳尊宿)이라 하였다.

존속이란 뛰어난 사람이나 연장자를 일컫는 말이다. 존은 경어이고, 숙은 장로로서 수행의 경력이 길어서 역량도 뛰어난 노승을 이르는 말이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주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선사의 길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나의 길은 간단하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잔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선사에게 물은 사람은 당황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밥을 먹고 잠을 잔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잠자는데 어떤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밥을 먹을 때 먹는 일만 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 잠을 잘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나는 먹을 때 먹기만 하고 잘 때 자기만 한다. 하나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다."

목주 선사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 상념 없이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어떤 행위도 선수행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을 때도 생각하지 말고 먹고, 걸을 때에도 생각하지 말고, 목욕할 때에도 그냥 목욕만 하라는 것이다. 말이 떠오르면 생각이 찾아오지만 말을 떠올리지 않으면 관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선사에게 물었다. "수행의 방편 하나를 알려 주십시오."

선사가 말했다.

"내가 방편을 알려준다 해도 그대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인가?"

선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방편을 구하지 마라. 나를 지켜보기만 하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선사에게 방편을 구한 사람이 7일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그가 말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다 더욱 모르겠습니다. 7일 동안 쉬지 않고 지켜보았는데 무엇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지켜보지 않았다. 내가 걷는 모습을 보았는가? 나는 길을 때 걷기만 한다. 아침에 내게 차를 가져왔을 때를 지켜보았는가? 나는

목주 선사는 상념 없는 행동 강조

무엇을 하든 오로지 그것만 해야

생각하지 않는 이에겐 무념이 곧 살

선의 길에는 의도 없는 행위만 있어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신다. 거기에 나는 없다. '마실' 만이 존재한다. 이를 잘 지켜보았는가? 그대가 정녕 지켜보았다면 내가 거기 없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각연사 보리수에서 나온 단주를 둘러며 귀경 길에 올랐다. 염주를 돌리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염주 돌리는 일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다. 마치 생각을 하지 않는 이에겐 살 전체가 될 터이니.

우리는 환경에 매여 노예가 되고, 시간에 쫓겨 노예가 되며, 대상에 흘러 나를 잃기 쉽다. 역경에 놓이면 그저 그 처지를 지켜보기만 하고, 대상에 부딪치면 대상만을 지켜보아야 한다. 여기서 묘안을 짜 내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 갯벌 속에 들어가 한 발 한 발 건네기가 만만치 않다. 이내 지치기 일 수다.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딛서 앉아버리면 그만이다. 왜 앉을 생각을 못할까. 갯벌 속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사의 길은 단순하다. 순수한 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그 행위는 의도하는 바가 없다. 의도하는 바가 없으니 자유로운 바에 없다. 그대는 아는가. 이 자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접합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티커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접합양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권사지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 766-0242~3 / 팩스 031) 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정리 35-16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밀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동할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적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